

중국 현대 보수주의 문화사조에 대한 새로운 인식*

朱 壽 桐**

I. 문제의 제기

이제까지 우리는 “진보적”·“혁명적”인 사조에 대해서만 심도있는 연구와 긍정적인 평가를 해왔던 반면, 진보적이거나 혁명적이지 못한 사조나 그에 상응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비판 태도를 취해왔다. 또한 대부분 심도있는 고찰을 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한 기초 위에서 비판을 전개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수많은 역사 문제 인식상의 천박함과 견강부회, 그리고 단순함을 야기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중국 현대문학 연구와 중국 현대 문화 및 현대 사상사 연구의 천착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연구의 기본 태도는 사실을 중시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태도에 바탕을 두고 보수주의 문화사조를 새롭게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II. “보수주의” 문화사조

이론상으로 이것은 역사적 문화 진보와 혁명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유

* 이 글은 1995년12월 7일(목) 제58회 공개강연회에서 朱壽桐 教授가 발표한 요지문이다.

** 南京大學 教授

지하는 것이며, 역사적 문화 축적에 더욱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조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각종의 보수주의는 늘 진보 세력과 대립하여 왔다.

백화문 운동과 대립하였던 것은 다음과 같다. : “국수파(國粹派)”(유사배(劉師培)·황간(黃侃), “학형파(學衡派)”(매광적(梅光迪)), “갑인파(甲寅派)”(장사조(章士釗)).

사회주의 정치화 운동과 대립하였던 것으로는 “문제와 주의(問題與主義)” 논자들과 노력주보사(努力周報社)(호적(胡適)), 신월파(新月派)(호적(胡適)·서지마(徐志摩)·장군매(張君勱))가 있다.

서방화 문명운동과 대립하였던 것으로는 양계초(梁啓超)의 개량사상(改良思想)이 있다.

보편적 사회화사조와 대립하였던 것으로는 유미파사조(唯美派思潮)(창조사(創造社), 뒤에 나온 신월파)가 있다.

“프롤레타리아”정치화운동과 대립하였던 것으로는 신월파(新月派), 그리고 뒤에 나온 “자유인(自由人)”, “제삼종인(第三種人)” 등이 있다. 노신(魯迅)도 과격분자들에 의해서 이 진영으로 분류되었다.

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수주의”자들은 중복되는 점이 있는데, 어떤 측면은 보수적이고 어떤 측면은 진보적 혹은 급진적이다. 예컨대 주작인(周作人)과 같은 사람이다. 둘째, 보수주의와 급진주의 사이의 시간 전환은 갈수록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호적(胡適)과 창조사(創造社)가 그 예이다. 또한 양계초(梁啓超)도 그 예이다. 셋째, 급진주의에는 시대성을 반영하는 문학이 모두 포함되었으나, 역사성의 긍정은 주로 보수주의 사조로 넘겨졌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보수주의의 작품들이 사실은 심각한 역사적 가치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Ⅲ. 보수주의 문화 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

첫째, 보수주의는 단계성(層次性)을 가지고 있다. 높은 단계(高層次)에 있는 보수주의는 어쩌면 급진주의보다도 더 가치가 있을 것이다. 높은 단계(高層次)에 있는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역사는 진보한다는 관념의 기초 위에서 건립된 일종의 성숙된 욕망과 보수와 절제된 요구(守衡要求)이다. 호적(胡適)의 “국가의 고유한 문화를 정리한다.(整理國故)”와, 양계초(梁啓超)의 문명에 대한 사고(文明思考), 그리고 신월파의 서구적 자유이념과 인권주의 등은 모두 높은 단계의 보수사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보수주의의 안정성이다. 끊임없이 진화한다는 의식은 오로지 개혁만을 중시하고 속도만을 강조하였으며, 성숙과 안정을 고려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파괴적 요소가 강한 반면 건설적 요소는 약해진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신월파와 같은 보수주의자들은 질서와 규율을 중시하여 신문화의 흥분된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그 성과를 축적하는 작업을 유리하게 만들었다.

셋째, 보수주의의 견제와 균형(制衡) 역할이다. 끊임없는 진화는 반드시 강제성을 동반한 문화 현상을 야기시키는데, 이런 현상은 반드시 일원화(一元化)의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그러나, 보수주의는 너그러운 정신과 포용적인 국면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는 다원적 문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